

2023 October

10

Monthly Economic Trends
경기경제동향

경기

vol.74

경제동향

이슈리포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경기도의 대응

- 2023년 9월 취업자수

59천명 증가 ↑

- 2023년 8월 광공업 생산

1.6% 감소 ↓

- 2023년 8월 대형소매점 판매

2.0% 감소 ↓

- 2023년 9월 수출

2.3% 증가 ↑



GRI 경기연구원



CONTENTS

- 01** 경기도 경제정책 알기
 -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 02** 이슈리포트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경기도의 대응
- 03**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경기이야기
 - 경기도 반도체산업 현황
- 04** 경제동향

일러두기

〈경기경제동향〉은 경기도 경제동향과
현안 이슈를 다루는 경제전문지입니다.

- 1** 경기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기도 현황 - 경제·고용동향
- 2**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 이슈분석 - 경기경제동향

2가지 경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경기도청, 경기연구원
발행일 2023. 11. 13.
문의처 031-8008-8104, 031-250-3553

경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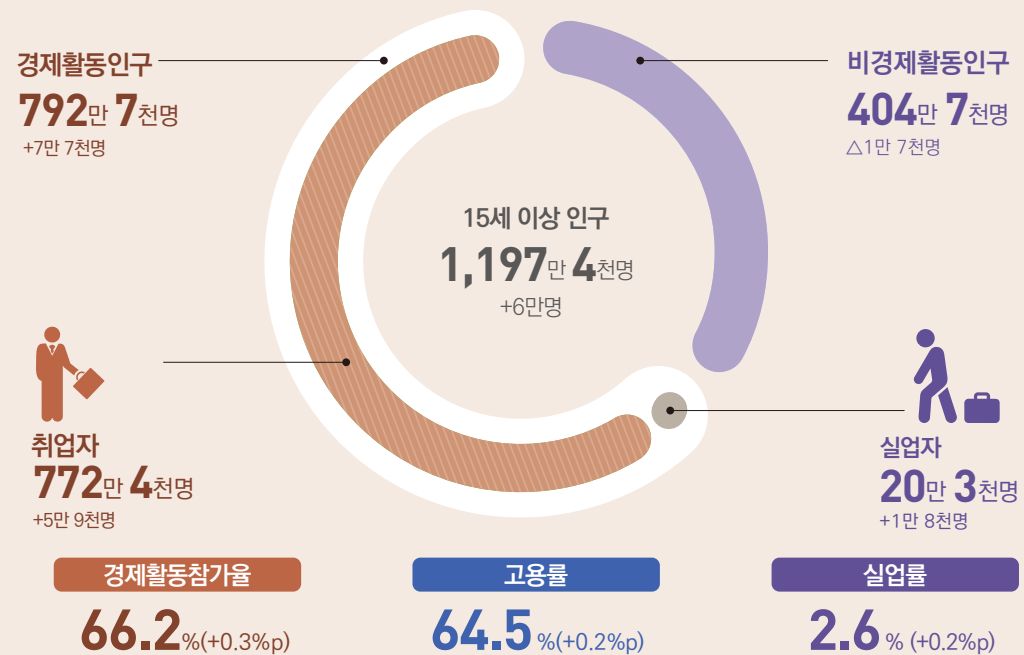
Monthly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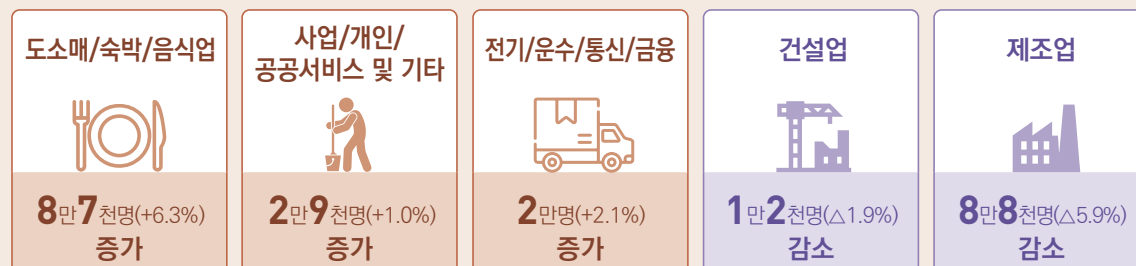
GRI 경기연구원

고용 (2023년 9월)

◦ 경제활동인구 구조



◦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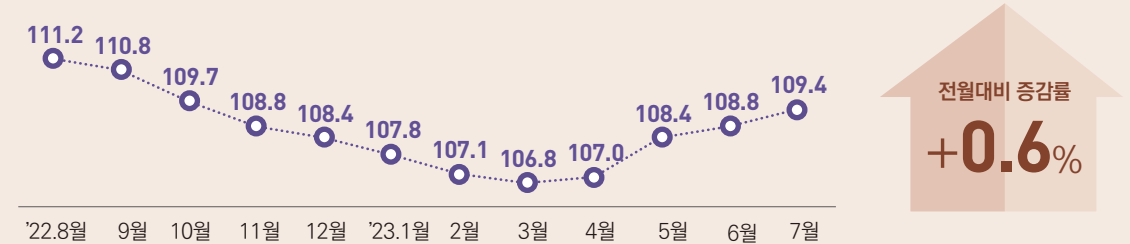


광공업생산 (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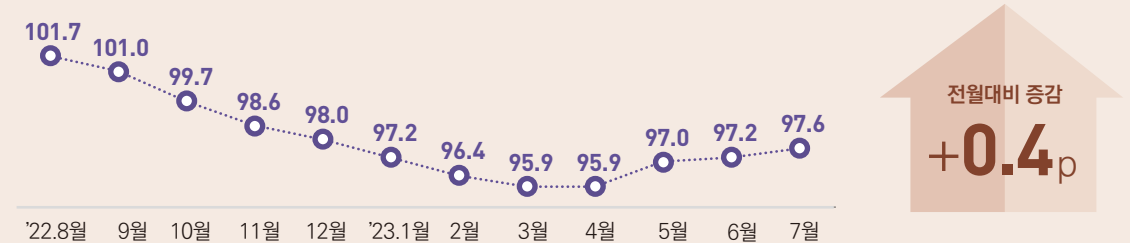


경기동행종합지수 (202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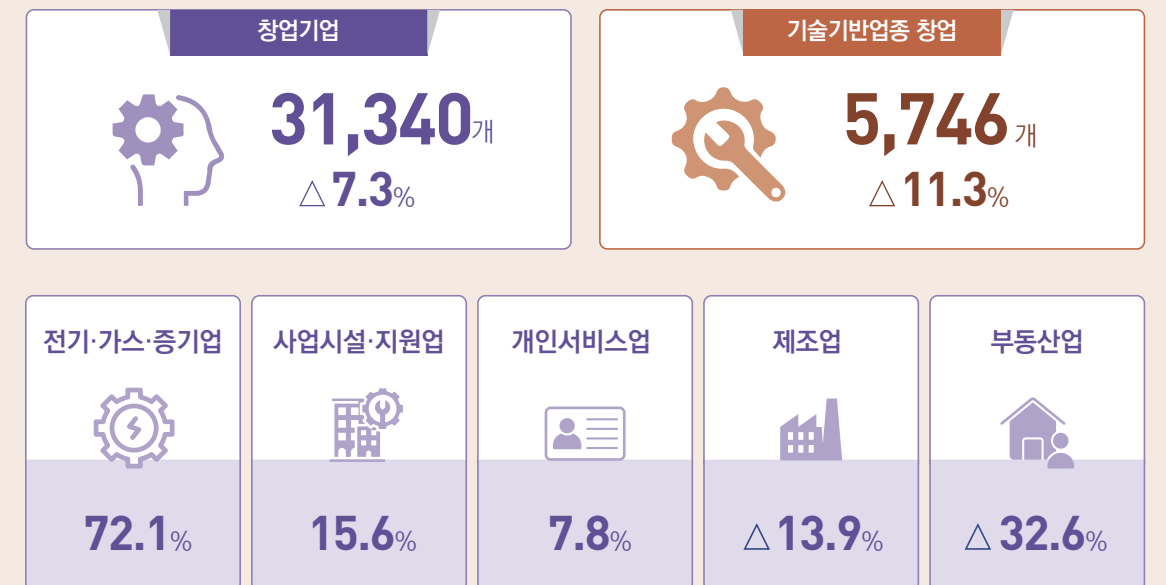
◦ 동행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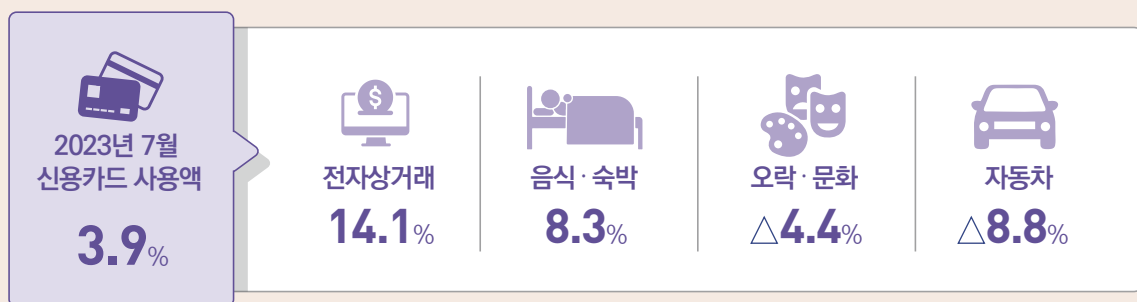
◦ 순환 변동치



창업기업 (202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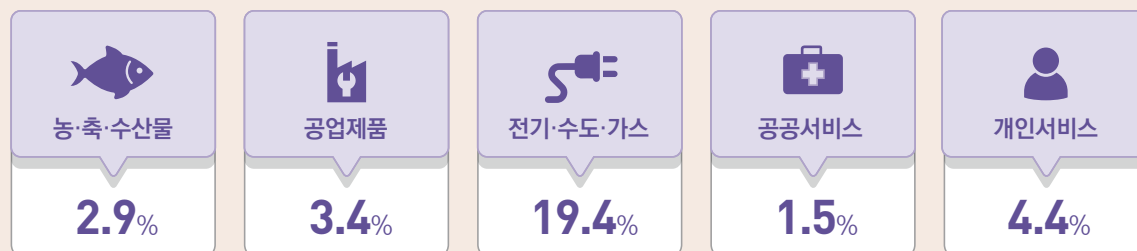
대형소매점 판매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2023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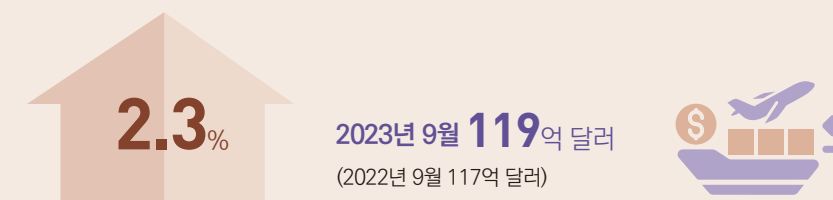


◦ 품목별 소비자물가 현황



수출입 (2023년 9월)

◦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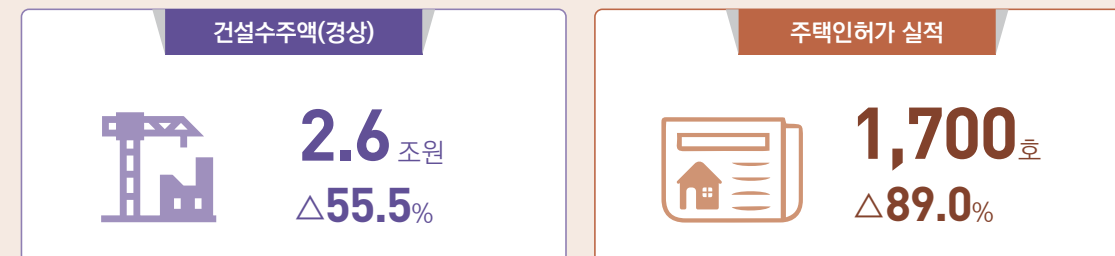
◦ 주요 수출 지역 현황



◦ 주요 수출 품목 현황



건설투자 (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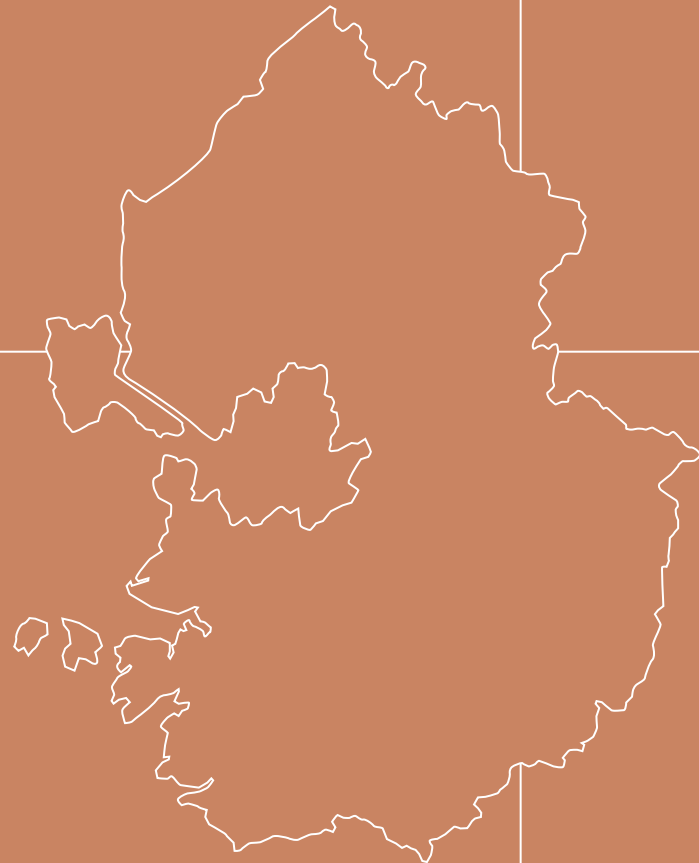
금융 (2023년 7월)



경기도 경제정책 알기

-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01



Monthly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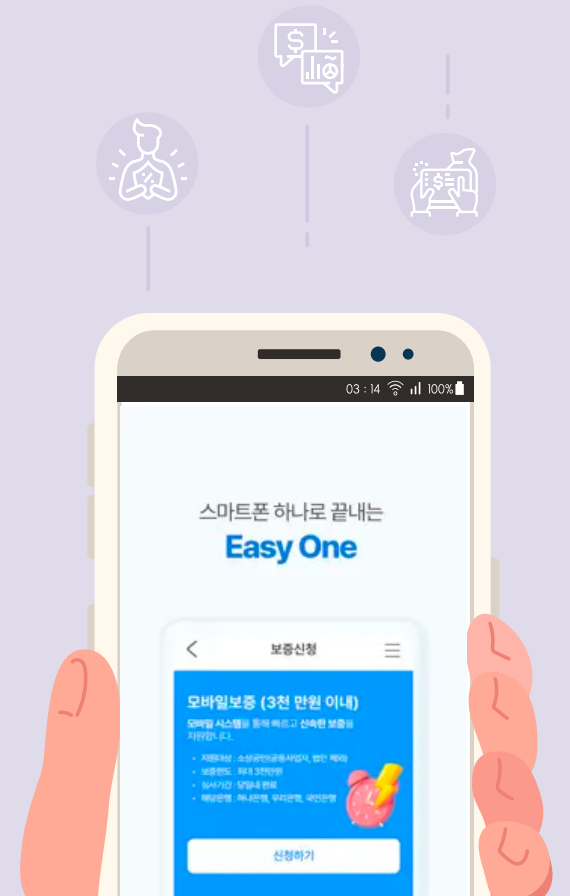


지원대상

- 운영자금**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
- 대환자금** 고금리 대출(7% 이상) 보유 소상공인
-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 대출조건** 8년(3년 거치 5년 원금분할상환)
- 보증비율** 100%
- 보증료를** 운영자금 : 연 0.8%, 대환자금 : 연 0.5%
- 대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신청방법

- **대 면 보 증**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5900)를 통한 예약 상담 신청
- **모바일App** :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신청



청년독립은 금융자립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저축에서 대출까지 우대금리로 청년독립 지원

도내 거주 25~34세 청년 대출한도 5백만원 경기민원4(<https://gg24.gg.go.kr>) 선착순 신청

청년층에도 적절한 대출지원이 필요하나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청년의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자산·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소액·저리·장기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과 우대금리 저축을 하나의 계좌로 이용 가능합니다.

모집개요

- 지원대상**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3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산해 경기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 지원내용**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단일계좌)
- 공급규모** 6만명
- 시행기관** (주)하나은행
- 대출한도** 최초 300만 원, 연장신청(1년 후) 500만 원 한도
- 신용점수(KCB, NICE 중 하나 이상) 최초 대비 유지·상승한 경우
- 저축한도** 1인당 500만 원 한도 우대금리 지원
- 적용금리** 대출 4.752%, 예금 2.7% ('23.10.20. 기준)
- 이용기간** 최장 10년(1년 단위 연장)

신청자격 및 방법

1단계 경기민원24 (gg24.gg.go.kr) 웹페이지

인적사항 입력, 휴대전화 본인인증 → 도내 거주조건, 연령 확인 → 금융교육(5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단계 적격여부 통지, 2단계 접수요령 안내

- 기간** 2023.10.20(금) ~ 마감시까지
- 시간** 24시간
- 방법** 온라인 선착순 신청 (PC, 스마트폰, 태블릿PC)
- 적격통지** 적격자에 한해 2단계 신청 페이지 통지

2단계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접수 모바일 앱·웹 페이지

인적사항 입력, 휴대전화 본인인증 → 1단계 심사결과 적격 여부 확인 → 2단계(연체 등) 자격요건 심사 후 승인 → 계좌개설, 카드 신청, 약정 후 대출 실행

- 기간** 경기민원24 적격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 시간** 09~22시 (22시 입력 마감)
- 방법**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태블릿PC)

문의처

상품 내용 · 이용 조건 등

-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전용 콜센터 ☎ 1599-2121

신청방법 안내

- [1단계 - 경기민원24]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2단계 - 하나은행]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121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정책 관련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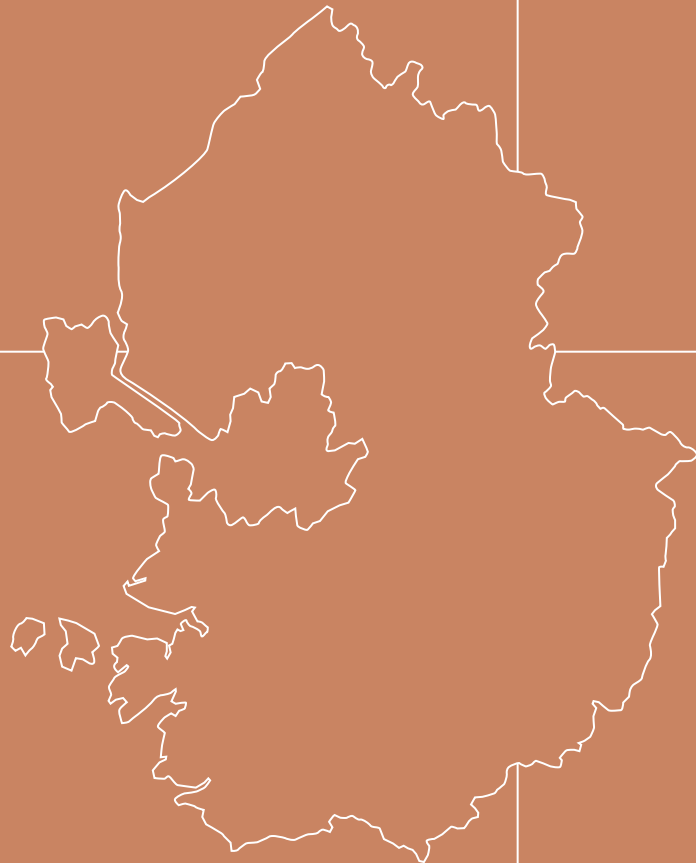
- 경기도 경제투자실 지역금융과 ☎ 031-8030-2811~2

이슈리포트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경기도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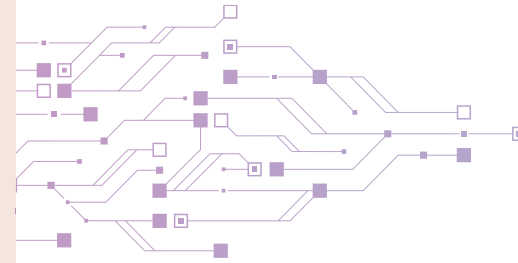
02

Monthly Economic Trends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경기도의 대응

기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반도체기업종합지원센터장 정원중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리는 AI, 5G,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오픈AI'가 작년 11월 공개한 '챗 GPT' 열풍으로 글로벌 빅테크(Big-tech) 기업의 사활을 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가속도가 붙었으며, 막대한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엔비디아(NVIDIA)의 GPU인 A100, H100은 개당 2,000~5,000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40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로인해 엔비디아칩을 생산하는 대만의 TSMC는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파운드리(Foundry)를 확대증설 하고 있음에도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시대 주요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메타버스 등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그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5개 국가 이내이며,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및 낸드플래시 생산에 있어 세계 2위의 생산국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반도체산업에 최근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자국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시행한 반도체법(Chips Act)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법은 2,800억불을 투자해, 대만

과 한국 중심으로 구축된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 자국 내로 끌어오고자 하는 막강한 유인책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에 첨단공정을 위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노광장비 수출을 중국에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 낸드플래시와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시안,충칭)와 SK하이닉스(우시,다롄)로서는 폭발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1위 수입국인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다만 지난 9월22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법상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 최종안에 생산능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을 허용하고 지난 10월13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은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별도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주력산업으로 2022년 1,29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8.9%를 차지하였고 2010년 10.9%에서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를 살펴보자. 경기도 반도체사업체는 제조업 기준¹⁾, 전국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64.8%), 출하액(78%) 기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팹이 모두 경기도에 있으며, 반도체 장비 기준으로는 전국의 5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42년까지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남사)으로 지정(2023.3월)되고, 지난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용인(남사,원사,기흥), 평택(고덕)이 소부장 특화 단지로 안성(동신)이 선정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Chat GPT로 촉발된 미래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와 기술패권 경쟁은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기회이며, 이 기회는 곧 경기도의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경기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반도체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경기도,경기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도내 반도체 기업 8,307개사의 DB를 수집,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표준

산업분류코드 6종²⁾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휴폐업기업을 정리해 최종 5,032개사의 기업 DB를 도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도내 반도체기업을 공정별 기준과 같은 전통적인 분류방법도 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5개 그룹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룹별 특징을 살펴보면, 그룹1의 기업은 아이디어 및 특정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 필요로 했으며 그룹2는 반도체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룹으로 반도체경기에 따른 휴폐업의 위험성이 존재했다. 그룹3은 매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및 기술완성도를 꾸준히 증가시켜야 하는 그룹이며, 그룹4는 국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충과 기술개발 니즈가 있었다. 그룹5는 국내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룹별로 다른 니즈를 반영해 타겟화된 지원정책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규모의 성장이 필요한 그룹1,2는 컨설팅 및 자금, 창업지원, 교육, 사업화 지원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이 예시가 되겠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분야 육성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우위기술 선점과 시스템 반도체 신격차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2023 관계부처 합동)

〈 매출비중에 따른 도내 반도체기업 분류현황 〉

매출액	그룹1 (1억미만)	그룹2 (10억원 미만)	그룹3 (100억원 미만)	그룹4 (1,000억원 미만)	그룹5 (1,000억원 이상)
비중	6.40%	39.50%	41.70%	10.30%	1.90%

1) 경기도 반도체 사업체 수 225개(전국 대비 48%), 종사자9.2만명(64.8%), 출하액99.6조원(78%) (출처 : 통계청, 광업 제조업 조사(2021))

2) 반도체 제조용 기계,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기타 반도체 소자,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중앙정부의 R&D 원천기술개발 분야 육성보다는 실제 관련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반도체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R&D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지원 및 활발한 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내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양성 및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개별화된 육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반도체시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중은 약60%를 차지해 25%수준인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2.5배 이상 큰 시장이며 특히 AI, 미래차, 로봇 등 시스템반도체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시스템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등)과 대만(미디어텍, 노바텍, 리얼텍 등)에 비해 글로벌 10위안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1위 팹리스 기업인 LX 세미콘이 2,2조(2022년 기준)의 매출은 퀄컴의 3.7%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남, 수원 등에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성, 평택, 용인, 이천으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팹과 반도체 장비 생태계를 모두 갖춘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팹리스-디자인하우스-후공정 기업이 집적하여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구성에 역량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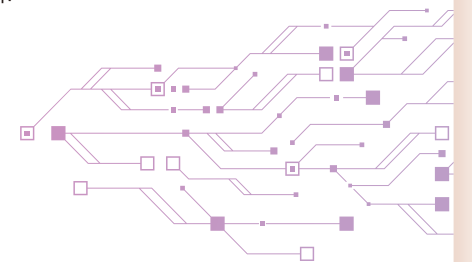
현재 반도체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협회 등에서 다양한 반도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별 교육이 일부 중복되고, 단기 위주의 초중급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 전문인력이 필수적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인력 쇼티지(Shortage)를 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다. 무엇

보다 인력공급위주의 교육이 중심이다 보니 실제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국내 반도체 인력 생태계의 미스매칭이 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생이 실제 본인의 실력과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반도체 취업센터와 같은 일자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지난 8월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미국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며 "AI 관련 투자가 2025년까지 미국에서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전 세계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도는 전 산업분야에서 기업체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국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에 있어서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바로미터로 중요한 섹터이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와 경기도가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이유이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의 린치핀(Linchpin)이 경기도로 넘어왔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정책의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기업 하나하나에 딱 맞는 정책적 지원과 인력공급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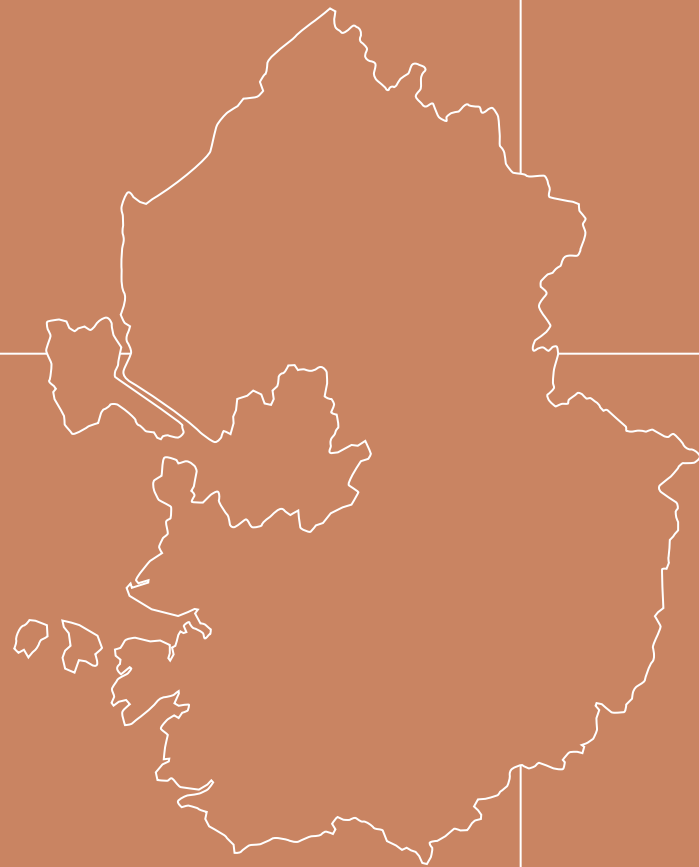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9월2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서 경기도 반도체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 반도체 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척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경기 이야기

• 경기도 반도체산업 현황

03



Monthly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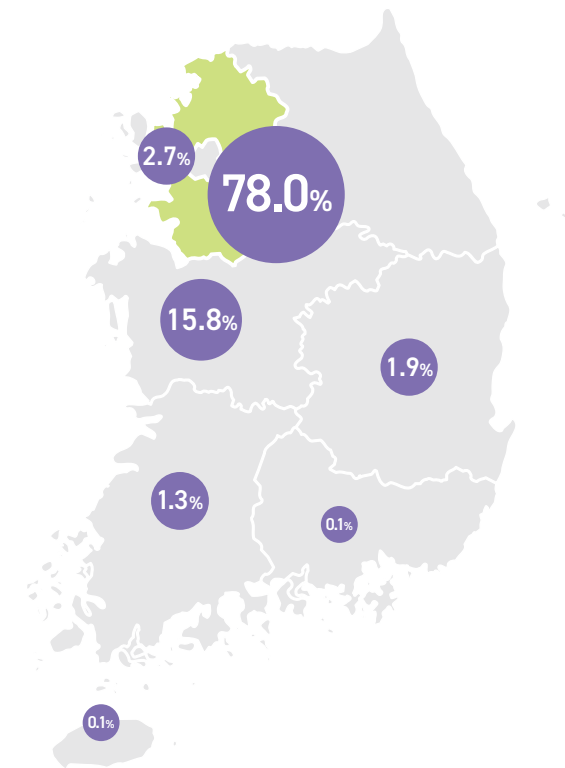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경기이야기

경기도 반도체산업 현황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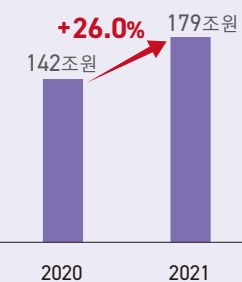
생산액
(2021년 기준)

139조 3,804억원
(전국 178조 6,594억원의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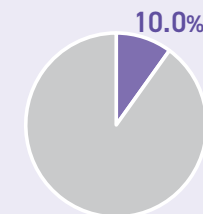


전국

반도체산업 생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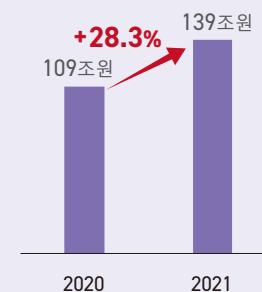
반도체산업 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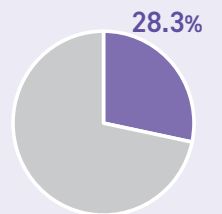
주 : 1) 2021년 전체 제조업 대비

경기도

반도체산업 생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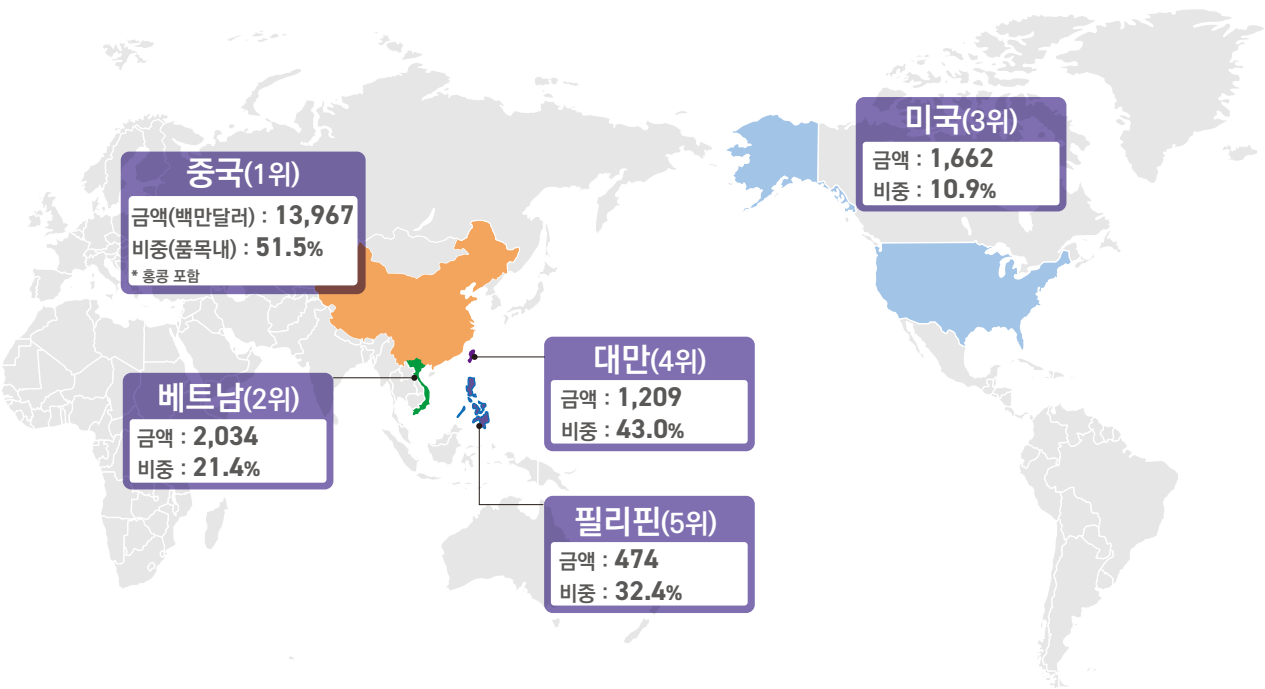
반도체산업 생산 비중



주 : 1) 2021년 전체 제조업 대비

수출액
(2023년 1~9월 기준)

218억 달러
(전국 691억 달러의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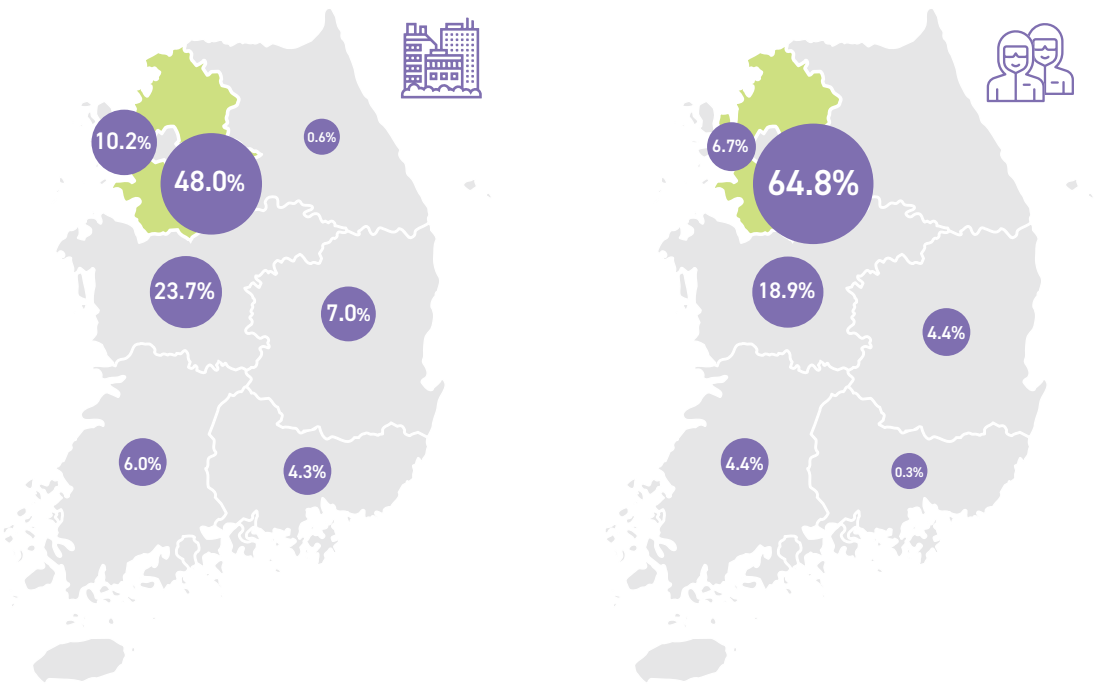
사업체수
(2021년 기준)

225개
(전국 469개의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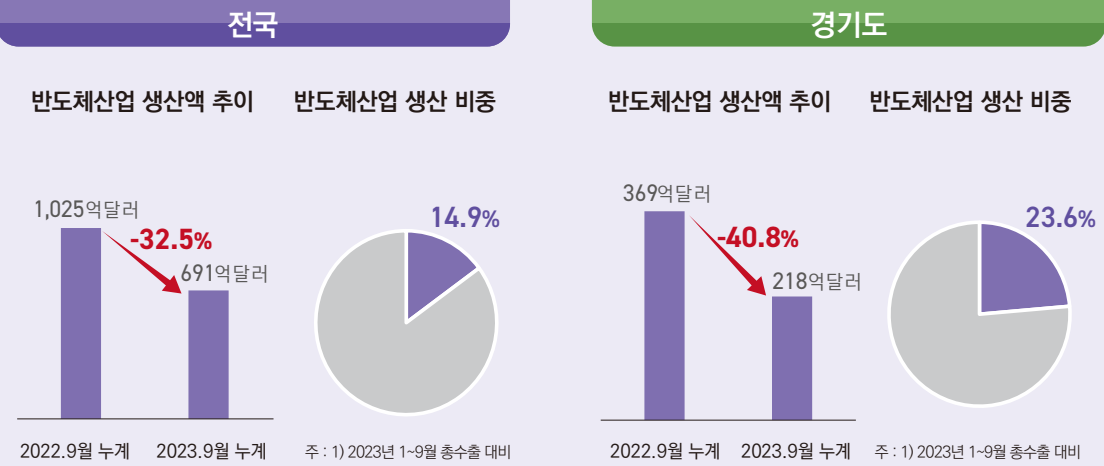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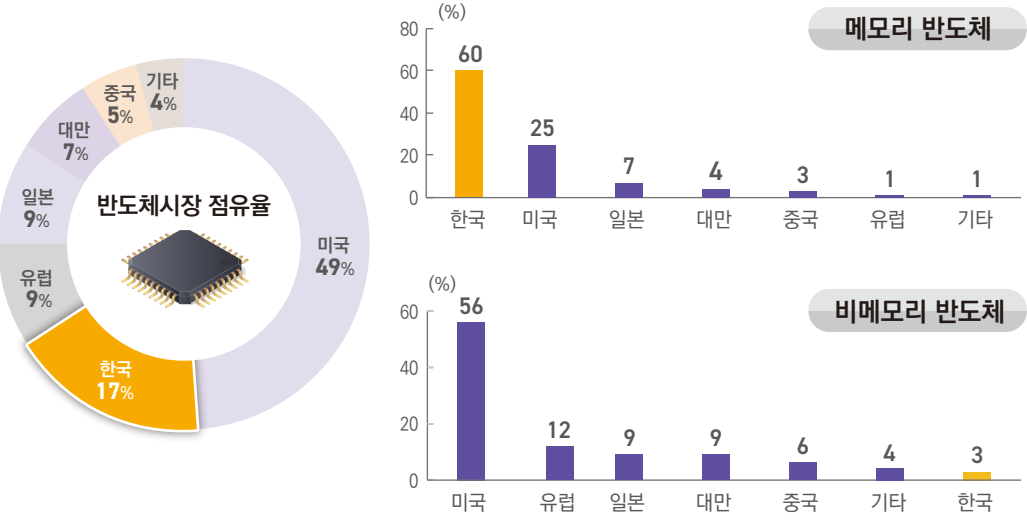
종사자수
(2021년 기준)

92,206명
(전국 142,257명의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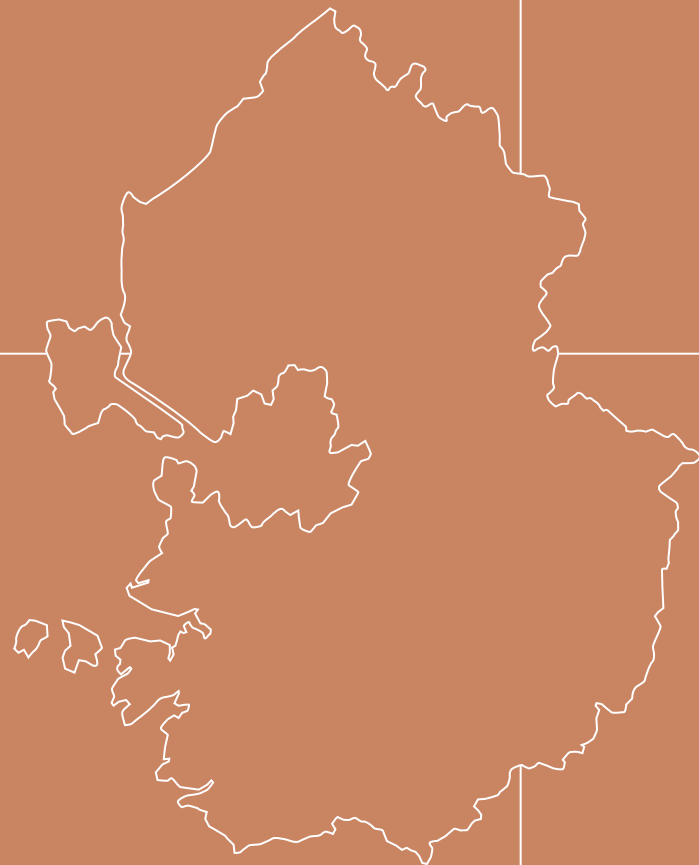
* 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준



참고 2022년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 현황 * 자료 : GARTNER, 한국은행



- 경기도 경기동행지수
- 고용
- 광공업 생산
- 소비
- 수출입
- 소비자물가
- 가계 및 기업대출
- 건설
- 창업기업 동향



○ 2023년 7월 경기도 경기동행지수는 109.4, 순환변동치는 97.6

- 동행종합지수는 109.4(2020=100)로 전월대비 0.6%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지난 하반기 반도체 산업 불황, 대내외 금리인상 등으로 8개월 연속 감소하였지만, 생산과 고용 부문의 증가세에 기반하여 전월대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
-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순환변동치는 97.6으로 전월대비 0.4p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7p 하회
 - 소비부문이 부진하나, 생산부문의 회복세에 기반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 구성지표의 계절조정 수치에서는 개인신용카드 결제액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실질수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광공업생산지수가 증가세로 전환
 -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상승으로 재전환
 - 개인신용카드 결제액은 전월대비 3.0% 감소하며 감소세 지속
 - 비농림어업 취업자는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 실질수출액은 전월대비 6.5% 감소

동행종합지수(2020=100) 및 순환변동치 현황¹⁾²⁾

항 목	2022						202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동행종합지수	111.5	111.2	110.8	109.7	108.8	108.4	107.8	107.1	106.8	107	108.4	108.8	109.4
- 전월비(%)	0.5	△0.3	△0.4	△1.0	△0.8	△0.4	△0.6	△0.7	△0.3	0.2	1.3	0.4	0.6
순환변동치	102.3	101.7	101	99.7	98.6	98	97.2	96.4	95.9	95.9	97	97.2	97.6
- 전월차(p)	0.1	△0.6	△0.7	△1.3	△1.1	△0.6	△0.8	△0.8	△0.4	0.0	1.1	0.2	0.4

구성지표 증감률¹⁾²⁾

(전월대비, %)

항 목	2022						202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P
광공업 생산지수	△1.6	△4.2	△3.6	△4.8	△3.1	△0.8	△7.0	△8.2	10.9	3.0	4.5	△0.3	0.8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6.3	△0.7	△5.8	8.0	△3.4	7.6	3.5	△18.6	14.9	△8.7	9.5	△5.0	△3.0
비농림어업 취업자	△0.2	0.2	△0.1	△0.2	△0.4	0.1	△0.8	0.5	0.4	△0.3	0.7	△0.4	0.3

주요 용어해설

-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의 경기상황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고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으로 볼 수 있음

1) 2020=100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2020년)과 일치시킴으로써 자료의 비교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최근 1개월은 잠정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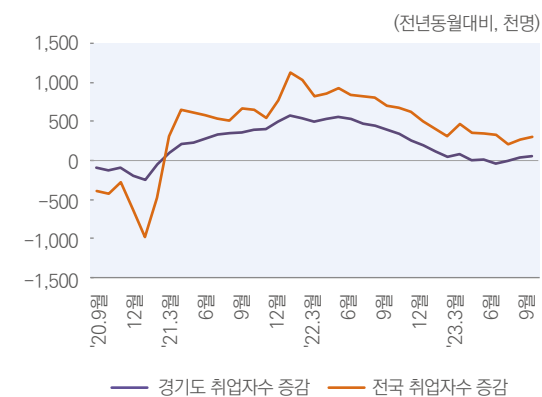
고용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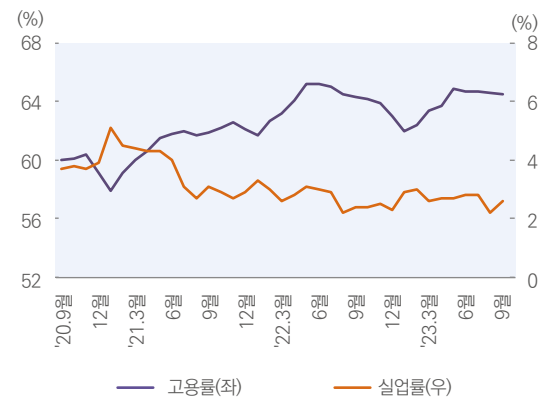
○ 2023년 9월 경기도 취업자 수 772.4만명, 전년동월대비 5.9만명 증가

- 취업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9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 중심으로 전월(4.4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5.9만명 증가를 기록
 - 고용률(64.5%)과 경제활동참가율(66.2%)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2%p, 0.3%p씩 상승
-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8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2.6%)도 0.2%p 소폭 상승

경기도와 전국의 취업자 수 추이



경기도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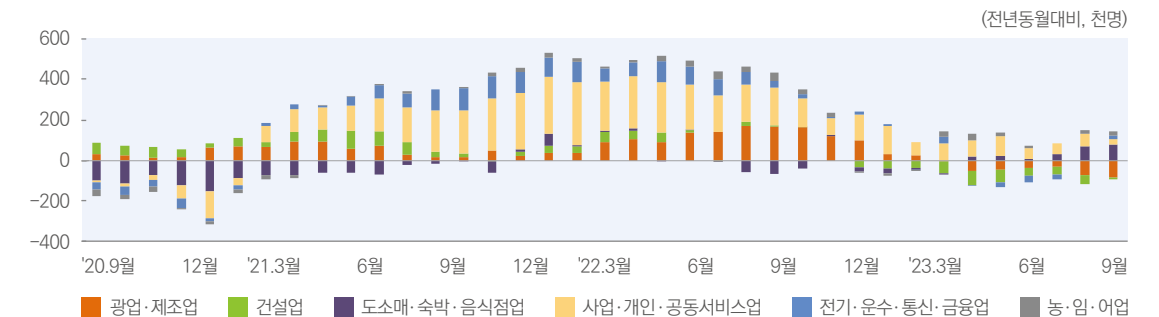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9월	4/4	1/4	2/4	3/4	8월	9월
취업자수	715.0	759.7	769.8	769.4	766.5	760.6	747.6	769.4	772.7	772.6	772.4
(증 감)	(24.1)	(44.8)	(54.4)	(43.9)	(40.0)	(26.6)	(8.3)	(△0.3)	(3.4)	(4.4)	(5.9)
고용률(%)	61.1	63.9	64.8	64.6	64.3	63.7	62.6	64.4	64.6	64.6	64.5
경제활동인구	742.2	780.9	793.4	789.1	785.0	779.2	769.4	791.1	792.8	789.9	792.7
(증 감)	(22.9)	(38.7)	(46.6)	(41.3)	(34.8)	(23.9)	(7.6)	(△2.2)	(3.7)	(4.1)	(7.7)
경제활동참가율(%)	63.5	65.7	66.8	66.3	65.9	65.3	64.4	66.2	66.3	66	66.2
실업자수	27.2	21.1	23.6	19.7	18.5	18.7	21.8	21.7	20.1	17.3	20.3
(증 감)	(△1.2)	(△6.1)	(△7.9)	(△2.6)	(△5.1)	(△2.7)	(△0.7)	(△1.9)	(0.3)	(△0.2)	(1.8)
실업률(%)	3.7	2.7	3.0	2.5	2.4	2.4	2.8	2.7	2.5	2.2	2.6

(만명, 전년동기대비 만명)

○ [산업별 취업자 증감] 서비스업의 증가세 지속, 제조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

- 서비스업(+14.4만명→+13.6만명)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23.8→9월, 전년동월대비 만명) :
(도소매·숙박·음식점)+7.8→+8.7 (사업·개인·공공)+6.6→+2.9 (전기·운수·통신·금융)0.0→+2.0
- 제조업(△7.5만명→△8.8만명)은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22.9월 +18.2만명), 생산감소 지속 등으로 감소폭 확대
- 건설업(△4.8만명→△1.2만명)의 감소폭은 축소되었고, 농림어업(+2.1만명→+2.1만명)은 농번기를 맞아 취업자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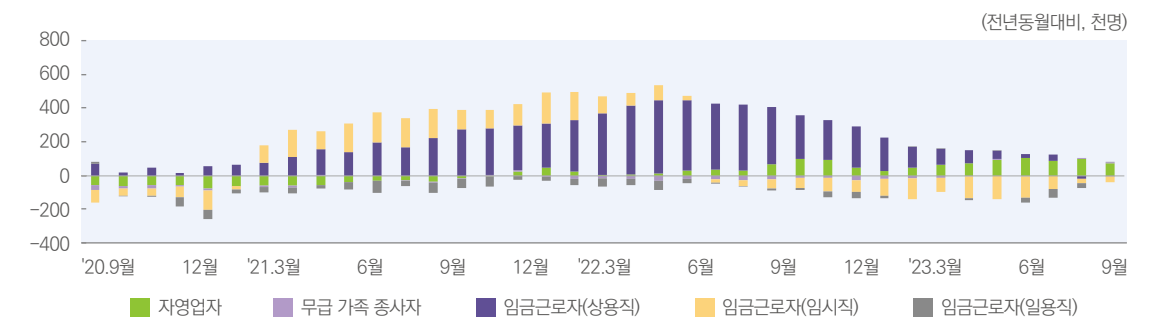
경기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 [지위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자영업·고령층 중심 취업자 수 증가

- (지위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감소세가 지속되나 감소폭은 축소
 - *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23.8→9월, 전년동월대비 만명) :
(상용직)△1.9→△0.4 (임시직)△3.3→△4.2 (일용직)△3.6→+0.6
 - 자영업자(+12.6만명→+9.4만명)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
- (연령별) 5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감소세 유지
 -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23.8→9월, 전년동월대비 만명) :
(청년)△2.8→△1.0 (30대)△0.6→△1.2 (40대)△3.9→△4.4 (50대)+4.5→+4.0 (60대+)+7.2→+8.4

경기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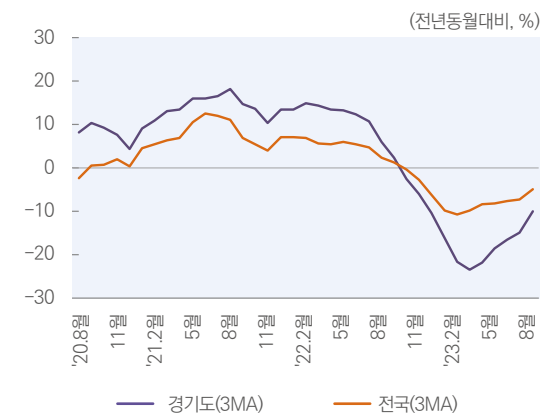
광공업 생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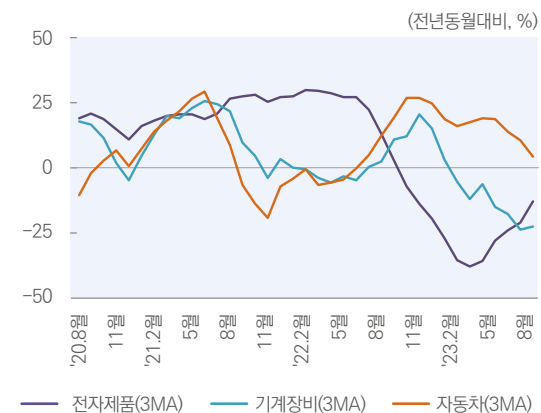
○ 2023년 8월 경기도 광공업생산 전월대비 4.4p 증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 8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13.2(2020=100.0)로 전월대비 4.4p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6% 감소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그 정도는 크게 둔화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의료용물질과 전기장비 제조업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전자부품과 화학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기계장비, 의료·정밀·광학 제조업 등 다수 업종이 감소하고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자동차 제조업이 감소로 전환하면서, 총지수는 소폭의 감소세를 유지
 - [증가] 의료용물질(10.5%), 전기장비(7.7%), 화학(1.0%), 전자부품(0.4%)
 - [감소] 의료·정밀·광학(△17.8%) 제조업의 감소세가 악화되었지만 기계장비(△15.6%), 비금속광물(△2.0%), 식료품(△6.9%) 등의 부진이 완화되며 전체 광공업생산지수에서의 감소폭은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함 (7월 △13.9% → 8월 △1.6%)

경기도와 전국의 광공업 생산 추이



경기도 주요 산업의 생산 추이



(2020=10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8월	4/4	1/4	2/4	7월	8월
광공업 생산		9.3	14.3	4.1	14.3	12.4	2.5	0.5	△10.6	△23.4	△16.3	△13.9	△1.6
주요 업종별	전자부품	21.1	23.3	7.8	29.4	26.9	2.6	△1.9	△19.8	△37.8	△24.1	△18.8	0.4
	의료·정밀·광학	2.1	18.3	5.1	11.8	0.1	3.7	4.9	5.8	△9.3	△14.5	△13.9	△17.8
	기계장비	12.6	14.2	3.7	△3.6	△4.8	10.0	6.3	13.7	△12.5	△15.2	△29.5	△15.6
	자동차	△9.7	6.1	8.1	△7.1	△0.6	18.4	28.1	24.4	17.6	13.8	6.0	△0.1

○ 2023년 8월 경기도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재고는 23.0% 증가

- 광공업 출하지수는 95.4(2020=100)로 전월대비 1.8p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2.7%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둔화되고 있음
 - [증가] 금속가공(6.7%), 전기장비(0.6%) 제조업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감소세를 유지하던 화학(4.1%), 전자부품(1.1%)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
 - [감소] 의료·정밀(△19.2%), 기계장비(△16.2%), 식료품(△8.5%) 제조업의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재고지수는 159.5(2020=100)로 전월대비 4.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3.0% 증가
 - [증가] 전자부품(34.1%), 자동차(20.1%), 기계장비(23.2%), 식료품(16.5%) 등 주요 업종의 증가세 지속
 - [감소] 의료·정밀(△16.8%), 전기장비(△17.5%), 고무·플라스틱(△4.2%) 등의 재고는 감소
- 광공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 계절조정)은 전월(155.4)대비 소폭 상승하며 157.8 기록

(2020=10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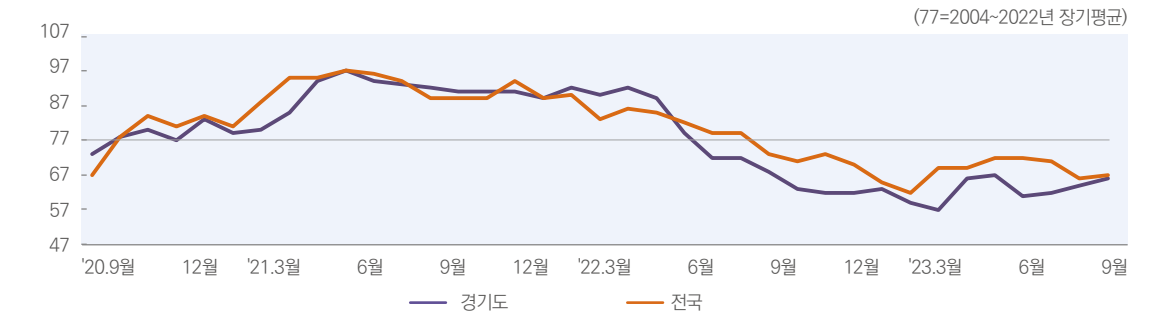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8월	4/4	1/4	2/4	7월	8월
광공업 출하	6.3	8.2	△1.1	3.7	1.9	△3.4	△5.2	△6.4	△16.6	△9.1	△6.4	△2.7
광공업 재고*	△1.1	17.2	11.4	13.4	31.7	14.8	28.7	11.4	19.8	14.5	15.1	23.0
광공업 재고율*(%)	-	-	-	-	-	-	124.6	-	-	-	155.4	157.8

* 재고, 재고율은 광공업 중 제조업에 한정하여 정의됨

○ 2023년 9월 경기도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대비 2p 상승한 67

- 제조업 업황 BSI는 9월에 전월대비 2p 상승한 67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나, 10월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2p 하락하며 69를 기록
 - (9월 업황 실적) 생산, 신규수주, 채산성, 제품판매가격, 설비투자, 인력사정, 자금사정 항목에서 악화했지만 매출, 제품재고, 내수판매, 수출 등의 항목에서 개선됨
 - (10월 업황 전망) 채산성, 제품판매가격, 설비투자, 자금사정 등의 항목에서 악화했지만 제품재고, 생산설비, 가동률 등의 항목에선 전망이 개선됨

경기도와 전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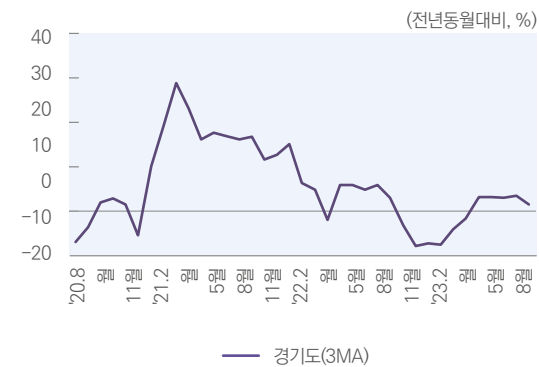
소비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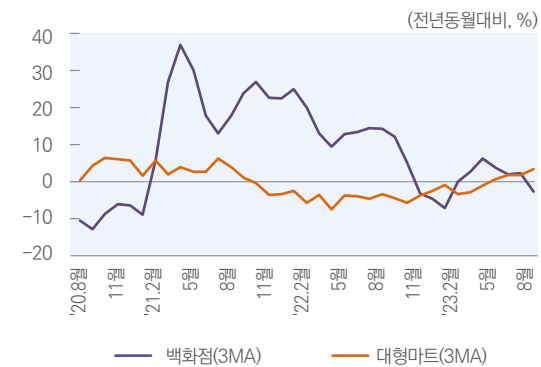
○ 2023년 8월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는 108.3으로 전월대비 3.6p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2.0% 감소
 - 낮은 수준이긴 하나 6개월째 이어지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11.2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17.8p)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6개월째 이어지던 증가세가 12.7% 감소로 전환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6.7로 전월대비 3.5p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로도 5.1%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경기도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기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 추이



(2020=10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8월	4/4	1/4	2/4	7월	8월
대형소매점 판매	△2.5	7.6	0.7	2.7	2.9	1.4	2.8	△3.7	△1.2	1.5	2.3	△2.0
백화점	△12.8	21.7	7.5	12.8	13.5	11.6	13.3	△4.7	2.1	2.0	3.1	△12.7
대형마트	3.9	0.1	△3.7	△3.2	△4.1	△4.4	△3.1	△2.8	△3.0	1.7	2.2	5.1

○ 2023년 7월 경기도 신용카드 결제액은 12.9조원,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7월 개인신용카드 결제액(12조 8,717억원)은 전월(12조 5,914억원) 대비 약 2.2%(0.3조원)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3.9%(0.5조원)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 음식·숙박(8.3%), 전자상거래(14.1%), 종합소매(8.3%), 보건·의료(8.7%), 교육(15.1%), 식료품(6.7%) 등의 분야에서의 소비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연료(△28.1), 자동차(△8.8%), 여행·교통(△4.3%), 오락·문화(△4.4%)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하며 전체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함
 - 음식·숙박업의 7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8.3%)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1/4분기 증가율(34.9%)에서 크게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가 4월 이후 크게 둔화하고 있음을 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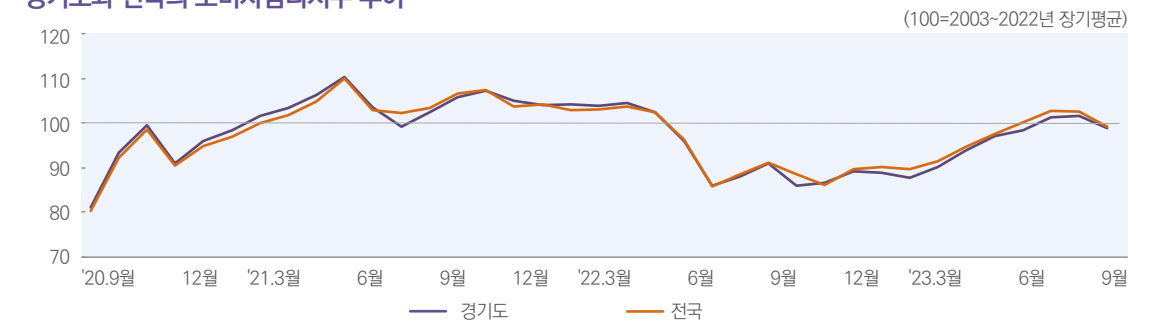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7월	4/4	1/4	2/4	6월	7월
신용카드 결제액	0.5	11.8	13.4	11.8	15.9	15.1	16.1	10.9	12.2	5.0	5.5	3.9
종합소매	5.1	9.0	7.0	6.0	9.7	6.2	8.2	6.0	4.8	4.0	4.4	8.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11.7	32.2	22.7	26.8	27.6	22.9	21.4	15.4	13.0	12.5	13.1	14.1
식료품	19.0	13.3	6.5	11.0	12.0	1.9	8.3	2.3	0.4	1.9	6.7	3.9
의류·잡화	△11.5	7.0	6.1	5.1	11.8	7.1	13.5	1.0	13.4	2.8	6.3	2.3
음식·숙박	△10.8	△1.9	25.4	13.4	27.9	37.5	44.6	21.7	34.9	8.9	6.8	8.3

○ 2023년 9월 경기도 소비자심리지수는 99.4로 전월대비 2.6p 하락

-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4로 전월(102.0)대비 2.6p 하락하며 6개월 연속 이어지던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전년동월(91.4)대비로는 8.0p 높은 수준
 - 전월대비 물가수준전망, 가계저축전망 등의 항목이 개선됐으나, 향후경기전망, 현재경기판단, 소비지출전망 등의 항목이 악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하락으로 전환
 - * [상승] 물가수준전망(145→148), 가계저축전망(97→99), 현재가계저축(92→94)
 - * [불변] 현재생활형편(90→90), 가계수입전망(101→101), 현재가계부채(100→100)
 - * [하락] 향후경기전망(80→76), 현재경기판단(72→68), 소비지출전망(113→110), 생활형편전망(96→93)

경기도와 전국의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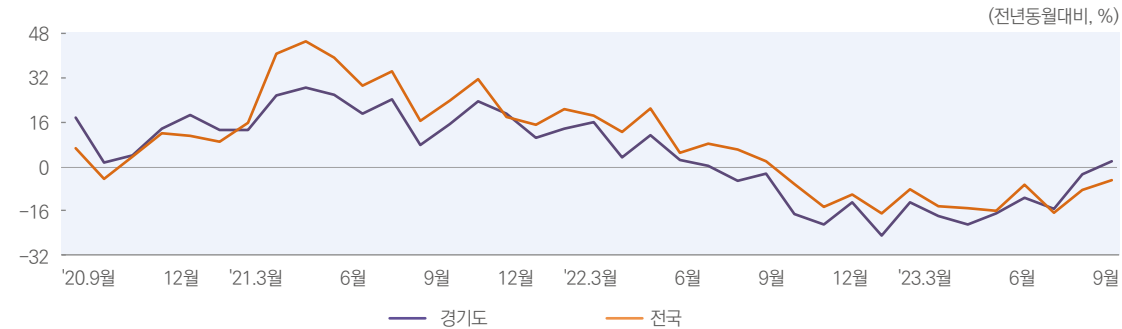
수출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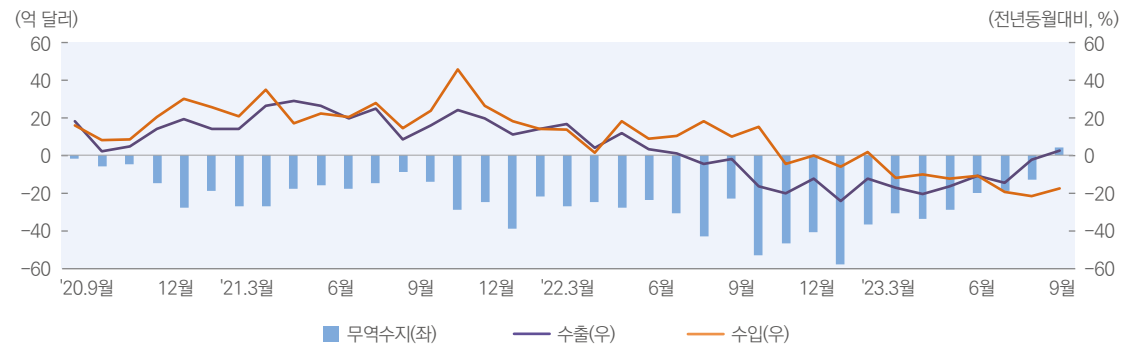
○ 2023년 9월 경기도 수출 119억 달러(2.3%), 수입 115억 달러(△17.7%)

- 9월 수출(119.2억 달러)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수출의 감소세가 멈추면서 '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
- 수입(115.2억 달러, △17.7%)은 주된 수입품목인 반도체, 천연가스의 수요가 줄어들며 전체 수입도 감소
-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1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흑자 달성(4.1억 달러)

경기도와 전국의 수출 증감률 추이



경기도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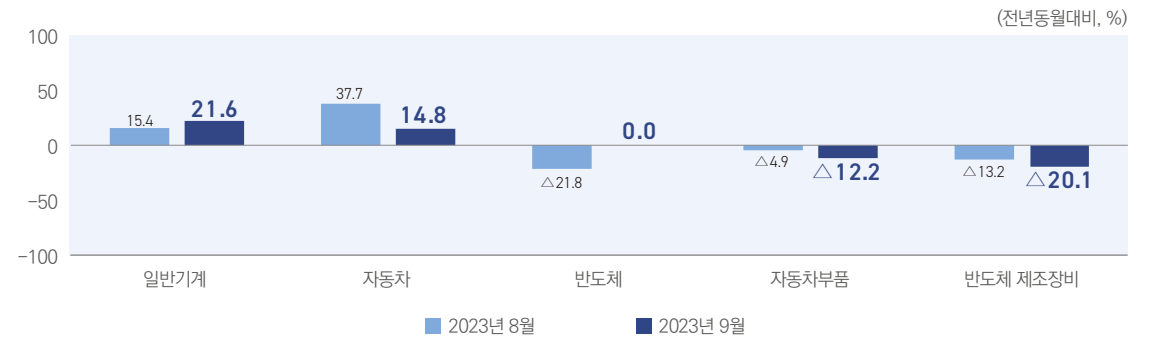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9월	4/4	1/4	2/4	3/4	8월	9월
수출	1,378	1,374	363	346	117	311	290	305	328	106	119
(증감률)	(19.7)	(△0.3)	(6.0)	(△2.0)	(△2.1)	(△16.4)	(△18.1)	(△15.9)	(△5.2)	(△2.4)	(2.3)
수입	1,624	1,780	439	444	140	453	417	389	356	119	115
(증감률)	(25.3)	(9.6)	(9.0)	(12.6)	(9.6)	(2.8)	(△6.0)	(△11.4)	(△19.8)	(△21.9)	(△17.7)
무역수지	△246	△406	△76	△98	△23	△142	△127	△84	△28	△13	4

○ [품목별 수출] 반도체 수출 부진 완화, 전기차 수출 호조세 지속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의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수출은 증가세 지속
 - 반도체(40.0억 달러, 0.0%)는 올해 4월 저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디스플레이(4.0억 달러, 58.6%)는 OLED 수요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자동차(15.2억 달러, 14.8%)는 전기차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11.7억 달러, 21.6%)는 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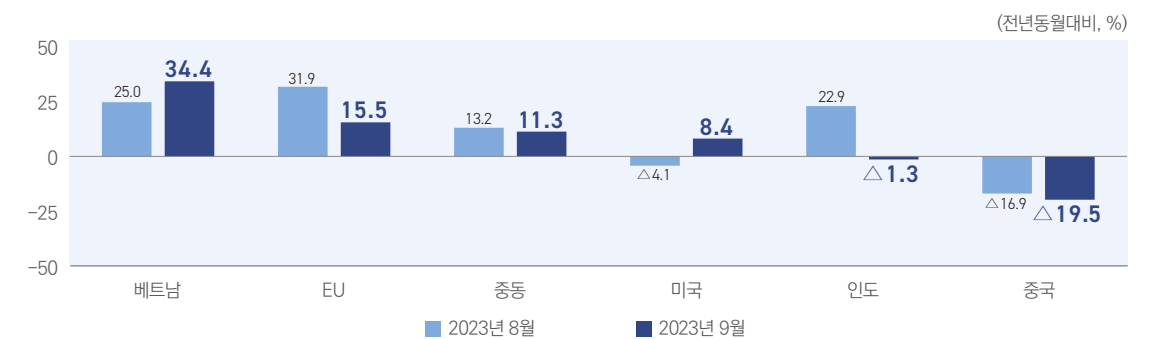
경기도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 [지역별 수출] 대미국·베트남 수출 증가, 대중국 수출 감소

- 미국·베트남 등 주요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고 대(對)EU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대중국 수출은 여전히 부진
 - 대미국 수출(20.6억 달러, 8.4%)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9월 들어 일반기계, 전기기기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 대베트남 수출(13.1억 달러, 34.4%)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대EU 수출(12.4억 달러, 15.5%)은 1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대중국 수출(28.5억 달러, △19.5%)은 반도체 수출 부진('23.9월 대중국 수출의 49.9%)으로 16개월 연속 감소

경기도의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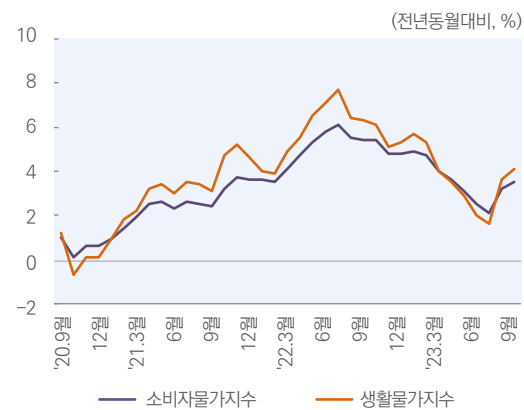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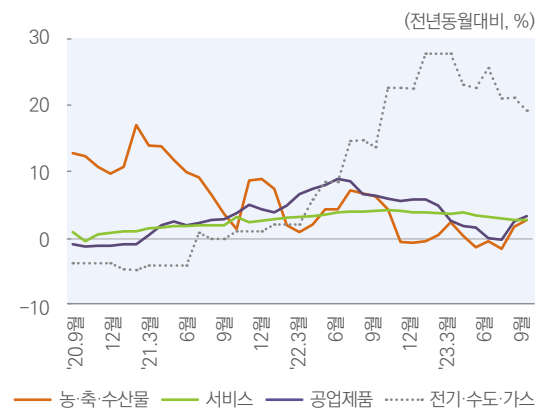
○ 2023년 9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8(2020=100)로 전월(112.2)대비 0.6p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6% 상승하며 둔화하던 오름세가 2개월 연속 확대됨
- 전월대비 농산물(3.7%), 석유류(3.8%), 전기·가스·수도(5.0%) 가격의 큰 폭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확대를 견인함
 - [농축수산물] 농산물 중심으로 전월대비 2.8% 상승,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석유류] 전월대비 3.8% 상승, 전년동월대비 전월(△10.5%)보다 하락폭 둔화(△4.6%)
 - * 경기도 보통휘발유 가격(원/ℓ, 오후넷): 9월 전월대비 상승률(2.8%)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2.4%)을 상회('22.9) 1,733.2 ... ('23.5) 1,631.7 → (6) 1,578.9 → (7) 1,589.5 → (8) 1,726.6 → (8) 1,775.1
 - [전기·수도·가스] 전월대비 5.0% 상승, 전년동월대비 19.4% 상승
 - [공공서비스] 전월대비 약보합세(△0.0%),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개인서비스] 외식(5.4%), 외식이외(3.7%) 모두 총지수보다 크게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총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4.2% 상승하며 오름세가 확대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4.2%)와 신선과실(4.3%) 중심으로 전월대비 3.4%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5.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지수 추이



경기도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2/4	3/4	9월	4/4	1/4	2/4	3/4	8월	9월
소비자물가지수	0.6	2.6	5.0	5.4	5.8	5.5	5.1	4.6	3.2	3.1	3.3	3.6
생활물가지수	0.6	3.4	5.8	6.5	6.9	6.4	5.6	5.1	2.9	3.2	3.7	4.1
신선식품지수	9.2	6.9	5.7	2.6	14.7	14.3	3.8	3.6	2.6	2.9	4.2	5.2

가계 및 기업대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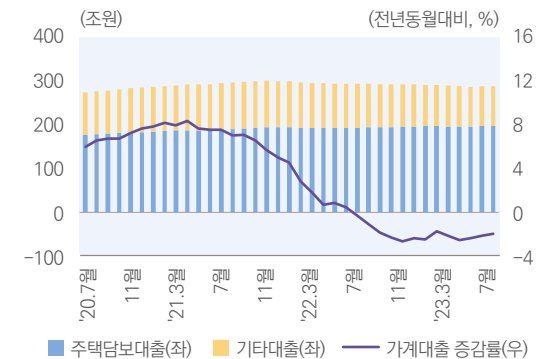
○ 2023년 7월 경기도 가계대출은 291.3조원, 전월대비 111억원 감소하며 약보합세

- 7월 가계대출 잔액(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전월대비 111억원(△0.0%) 감소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5.9조원(△2.0%) 감소한 291.3조원
 - [금융기관별] 은행권은 전월대비 0.4조원(0.2%)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4조원(△0.2%) 감소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각각 0.4조원(△0.6%), 5.5조원(△7.3%)씩 감소
 - [대출유형별]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0.4조원(0.2%) 증가하고 전년동월대비로도 4.2조원(2.1%) 증가한 데 반해,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0.4조원(△0.5%) 감소하며 2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10.1조원(△9.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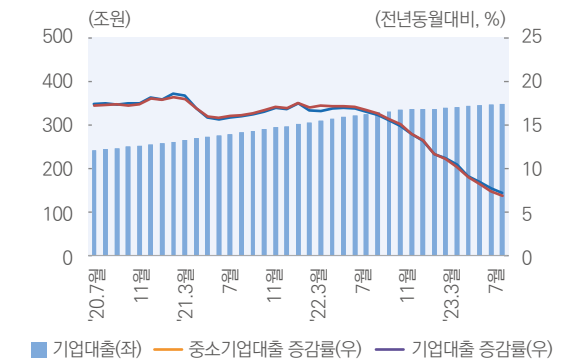
○ 2023년 7월 경기도 기업대출은 346.9조원, 전월대비 2.0조원 증가

- 7월 기업대출 잔액(예금취급기관 기준)은 전월대비 2.0조원(0.6%)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3.1조원(7.1%) 증가
 - 17%를 상회하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2년 7월 이후 둔화하기 시작하여 '23년 4월엔 10%를 하회하였고 그 이후로도 둔화세가 지속

경기도의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추이



경기도 기업대출(예금취급기관) 추이



(전년동기대비(전월대비) 증감률 %, 조원)

		2020	2021	2022				2023					
		4/4 ¹⁾	4/4	1/4	2/4	3/4	7월 ²⁾	4/4	1/4	2/4	6월	7월	잔액 ³⁾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7.8	5.1	1.8	0.4	△1.9	△0.2	△2.4	△2.2	△2.2	0.2	△0.0	291.3
대출 유형	주택담보대출	7.3	5.7	3.3	3.3	1.4	0.0	1.3	1.7	2.0	0.6	0.2	200.1
	기타대출	8.6	3.9	△0.8	△4.6	△7.7	△0.8	△9.1	△9.4	△10.2	△0.6	△0.5	91.2
금융 기관	은행권	9.6	4.0	0.8	0.1	△1.8	△0.2	△2.1	△1.2	△0.6	0.5	0.2	222.3
	제2금융권	2.3	8.4	5.0	1.6	△2.0	△0.3	△3.2	△5.1	△7.0	△0.7	△0.6	69.0
기업대출(예금취급기관)		18.1	16.7	16.5	16.8	15.5	1.1	13.1	10.4	7.7	0.3	0.6	346.9
	중소기업대출	17.9	16.9	17.1	17.0	15.6	1.0	13.1	10.2	7.3	0.3	0.6	322.8

1) 분기: 전년 동기 말 잔액 대비 증감률, 2) 월: 전월대비 증감률, 3) 해당 월의 대출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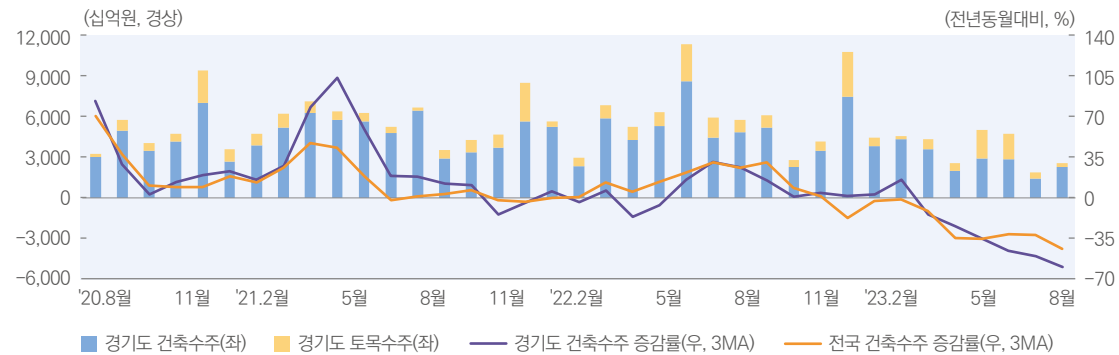
건설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 2023년 8월 경기도 건설수주액은 2.6조원, 전년동월대비 55.5% 감소

- [공종별] 8월 건축수주(7월 1.4→8월 2.3조원)는 전년동월(4.9조원)대비 53.2% 감소하였고, 토목수주(7월 0.5→8월 0.3조원)는 전년동월(0.9조원)대비 67.5% 감소
- [발주자별] 공공부문(7,344억원)에서는 기계설치, 도로·교량, 신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8,377억원)대비 12.3% 감소, 민간부문(1.8조원)은 공장·창고, 사무실, 신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4.9조원)대비 62.6% 감소
- [누계비] 올해 누적 수주액(30.3조원)은 전년동기누계(50.2조원)대비 39.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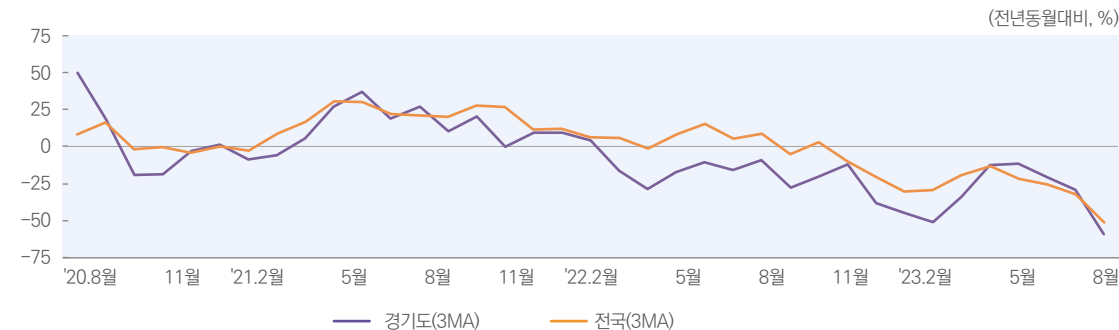
경기도의 건설수주 추이



○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인허가 1,700호, 전년동월대비 89.0% 감소

- 8월 주택인허가 실적(1,700호)은 전월(4,658호)대비 63.5% 감소했고 전년동월(15,490호)대비 89.0% 감소
 - [누계비] 올해 1~8월 인허가실적(50,621호)은 전년동기누계(88,377호)대비 42.7% 감소
 - [부문별] 민간부문(1,700호)은 전년동월(14,972호)대비 88.6% 감소하였고, 공공부문의 실적은 없음
 - [유형별] 아파트 인허가실적(810호)은 전년동월(12,755호)대비 93.6% 감소했고, 아파트이외 주택 인허가실적(890호)은 전년동월(2,735호)대비 67.5% 감소

경기도와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추이



창업기업 현황

자료: 통계청

○ 2023년 7월 경기도 창업기업은 3만 1,340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

- 전체 창업기업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지만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 창업기업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23.4)△13.2 (5)△12.7 (6)△11.0 (7)△7.3
- 17개 업종 중 7개 업종의 창업이 증가하고 10개 업종의 창업이 감소
 - (증가) 전기·가스·증기업은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등으로 창업이 활발하고 개인서비스업과 사업시설·지원업 창업도 증가세 유지
 - (감소) 부동산업과 건설업 창업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저조한 가운데, 제조업 창업은 생산과 수출 부진 장기화에 따라 감소세를 유지

(개, 전년동월대비 개, 전년동월대비 %)

		2021		2022		2023		
		연간	7월	연간	7월	7월	증감	증감률
창업기업		440,584	40,309	399,091	33,797	31,340	△2,457	△7.3
	기술기반업종 ³⁾	84,215	8,741	78,312	6,478	5,746	△732	△11.3
증가	전기·가스·증기업	1,551	149	1,411	111	191	80	72.1
	금융·보험업	1,528	143	1,217	79	104	25	31.6
	사업시설·지원업	11,866	1,045	12,125	1,027	1,187	160	15.6
	농림어업	2,062	172	2,257	192	208	16	8.3
	기타 개인서비스업	15,736	1,351	16,081	1,309	1,411	102	7.8
	숙박·음식점업	38,173	3,160	37,079	3,211	3,315	104	3.2
	교육서비스업	12,258	972	13,093	1,078	1,103	25	2.3
	감소	도소매업	130,014	10,777	142,051	12,351	12,299	△52
운수·창고업		19,611	1,837	19,878	1,645	1,620	△25	△1.5
건설업		20,952	1,811	20,143	1,735	1,630	△105	△6.1
수도·하수·폐기업		243	23	206	20	18	△2	△10.0
보건·사회복지업		1,464	131	1,440	121	107	△14	△11.6
제조업		15,896	1,520	13,602	1,236	1,064	△172	△13.9
전문·과학·기술업		23,524	2,701	19,918	1,595	1,373	△222	△13.9
예술·스포츠·여가업		7,604	690	8,173	736	621	△115	△15.6
정보통신업		20,656	2,482	19,642	1,571	1,193	△378	△24.1
부동산업		117,446	11,345	70,775	5,780	3,896	△1,884	△32.6

3)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은 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으로 구성됨.

주요 경제지표

ㅇ 경기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1	2022	2022		2023				
			3/4	4/4	1/4	2/4	7월	8월	9월
취업자수 증감(천명)	241	448	439	266	83	△3	△2	44	59
고용률(%)	61.1	63.9	64.6	63.7	62.6	64.4	64.7	64.6	64.5
실업률(%)	3.7	2.7	2.5	2.4	2.8	2.7	2.8	2.2	2.6
광공업생산	14.3	4.1	2.5	△10.5	△23.4	△16.6	△13.9	△1.6	-
소매판매액	2.9	△0.1	△0.5	△0.4	△0.7	△3.2	-	-	-
대형소매점판매	7.6	0.7	1.4	△3.7	△1.1	1.5	2.3	△2.0	-
수출	19.7	△0.3	△2.0	△16.4	△18.1	△15.9	△14.9	△2.4	2.3
수입	25.3	9.6	12.6	2.8	△6.0	△11.4	△19.6	△21.9	△17.7
무역수지(억달러)	△246	△406	△98	△142	△127	△84	△19	△13	4
소비자물가	2.6	5.0	5.8	5.1	4.6	3.2	2.2	3.3	3.6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 조원)	303.4	296.1	296.5	296.1	292.2	291.3	291.3	-	-
건설수주	20.7	9.9	14.9	1.7	△14.0	△45.8	△67.6	△55.5	-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ㅇ 전국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1	2022	2022		2023				
			3/4	4/4	1/4	2/4	7월	8월	9월
취업자수 증감(천명)	369	816	780	604	397	346	211	268	309
고용률(%)	60.5	62.1	62.8	62.3	61.2	61.2	63.2	63.1	63.2
실업률(%)	3.7	2.9	2.5	2.6	3.2	2.7	2.7	2.0	2.3
광공업생산	8.2	1.4	1.4	△6.4	△9.7	△7.6	△8.1	△0.5	-
소매판매액	5.8	△0.3	△0.9	△2.3	△0.4	△0.2	△1.7	△4.8	-
수출	25.7	6.1	5.8	△10.0	△12.7	△12.0	△16.1	△8.1	4.4
수입	31.5	18.9	22.6	3.1	△2.2	△13.2	△25.4	△22.8	△16.5
무역수지(억달러)	293	△478	△183	△186	△227	△35	18	10	37
소비자물가	2.5	5.1	5.9	5.3	4.7	3.2	2.3	3.4	3.7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 조원)	1,261.5	1,248.0	1,252.1	1,248.0	1,226.2	1,223.7	1,226.1	-	-
건설수주	9.2	10.1	30.5	△17.4	△11.1	△31.5	△49.0	△59.0	-

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시계열 변경에 따라 전국의 대형소매점판매지수는 제공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Monthly Economic Trends

